

한 사건에 대한 열두개의 시선

장편 「天使를 죽이려고」

李祭夏

소설가·화가

열두편의 독립된 이야기가 모여 총체적인 주제를 밀어올리는 이 작품으로 인간이 사회적 징표와 관계망을 일체 사상해버리고도 타인과 구분될 수 있는 개성적 존재일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한다.



“내가 죽으면... 가령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객사라도 하게 되면 시골에서 홀로 늙고 있는 누이에게 시신이 인도되기까지만 일주일이 더 걸릴 것이다. 어떤 종류의 신분증명서도 나는 갖고 있지 않다. 그 동안에 주검은 썩고 부엌에 떠서...”

어느 중편에서든가 이 비슷한 귀절을 썼던 적이 있다. 여기 나오는 어떤 종류의 신분증명서란 물론 현행되는 주민등록증 같은 걸 빗대놓고 한 소리였지만,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변혁기 사회를 살아오면서 하도 엄청난 사건들을 비일비재로 보고 겪은 탓인지 웬만한 일에는 눈썹 하나 까딱 안할 정도로 배짱과 면적이 생겨버렸는데도, 몇년에 한번씩 가슴이 덜컥하는 놀람을 실감할 때가 있다. 어느 아파트에서 주검이 발견됐는데 그게 열흘이나 두어 주일도 더 지난 것이었다는 기사 같은 것이다. 얼마 전에는 40여일이 지나 악취 때문에 발견됐다는 기사를 읽었다. 지면으로 뿐 아니라 어쩌다 그 비슷한 소리를 소문으로 들을 때도 충격은 마찬가지다. 문세광의 대통령 저격사건을 대낮 텔레비전 중계로 보면서도 이렇게 놀라지는 않았다. 박정권을 아무리 미워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은 외곽적 진실이나 사실에만 연한 문제가 아니라 보편타당한 개인의 내면과도 연루가 있는 일이었다. 미워했던 것이 그 증거고 그 만큼한 반사감정이 스며들었어야 옳았을 텐데, 이상하다.

「天使를 죽이려고」는 몇 년전부터 막연한 형태로 모여들던 플롯이 어느 실제사건을 계기로 완결돼버린 소설인데, 구성상으로는 그렇달 뿐이지 정작 집필은 초두 2,3십장 정도로 내몰라라 밀어놓고 있었다. 그 실제사건에 대한 공포와 계면적음과 일종의 예의가 편리하게도 게으름을 구실로

꺼어들었을 것이다. 쓰고 싶지 않은 소설을 써야 하는 경우가 이런 것일지 모른다.

열 두사람의 증언이 이 소설의 뼈대를 이룬다. 한 사건에 대한 열 두개의 시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추리소설식의 논리는 될수록 피하려고 한다.

사건의 당사자가 각 증인마다에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도록 할 것, 그러면서도 증인들은 당사자와 극히 미세하고 하찮은 일부분으로 밖에는 연루가 되어있지 않다. 증인들은 자신의 내면을 향해 자신의 삶을 피력하고, 한 두마디 증언은 그 틈바구니에 스며 있다. 열 두편의 독립된 이야기가 각 백매 썩씩 모여 총체적인 주제를 밀어올린다. 피라미트의 구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가장 직접적인 연관으로부터 차츰 흐려가면서 정점을 드러내보일 생각이다. 연고,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성격적 특징, 혹은 생김새나 가족관계 같은 것들을 일체 사상해버리고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인과 구분되는 개성적인 존재일 수가 있는가.

“지금 땅끝 저쪽에서 견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나를 향해 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릴케의 명제가 생각한다. 그렇다고 神의 문제 같은 것이 표면으로 떠오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대신 개인적 사머니즘이 집단 사머니즘과 연루되는 접점들이 그 자리를 메울 것도 같지만, 관심 밖의 일이다.

왜 그 실제사건이 나와 직접 관계가 있는가 싶은 강박관념이 이 소설의 모티브라고 할 수밖에는 없다. 어느 술집에서 만취가 된 그가 어저지로 피아노 앞에 앉아 ‘잊혀진 계절’인가 뭔가 하는 유행가를 서투르게 치는 소리를 2, 3분쯤 들었을 뿐인데, 얼마뒤에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다. 그 유행가 멜러디의 감상적 부분 때문이 아닌가 여겨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써버리고 이 관념의 미망에서 벗어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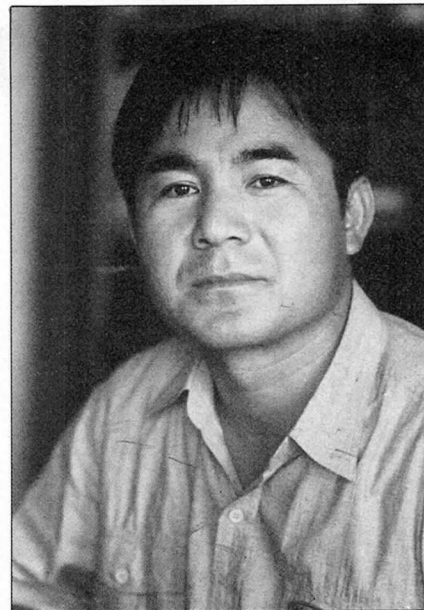
인도문화·사상의 체계적 이해

「印度의 이해」

이정호

외국어대 교수·인도문학

몇몇 대학에서 ‘서남아문화와 사회’ ‘인도학개론’을 강의한 체험을 바탕으로, 인도의 다양한 문화사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입문서를 펴낼 구상이다.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필자는 짧은 날의 소중한 시간들을 인도에서 인도학을 공부하는데 보냈다. 학문이야 끝이 없는 것이지만, 그나마 먼저 보고 듣고 배웠다 해서 지금은 대학에서 이것저것 인도관계 학문을 가르치고 있다.

필자의 체험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현재도 인도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고작 안다는 것이 불교나 연상하는 정도의 피상적인 것이 전부 아닌가 생각된다. 고래로 인도가 불교발상지이며 佛가 많은 나라임으로 해서 인도 불교문화가 유입되어 우리나라의 문화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불교라는 매체를 가지고 한국과 인도를 연관짓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좀더 인도사회의 각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가 인도문화 일반에 적극적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몸담고 있는 대학 뿐만이 아니라 최근 몇년간 출강하고 있는 타 대학에서 ‘서남아문화와 사회’ ‘인도학개론’이라는 강좌를 맡고서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서남아문화나 인도를 소개한 교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일찌기 인도에는 오랜 역사와 문명 속에 수많은 賢인들이 나와 독자적인 사상을 전개하여 다양한 종교(브라흐마니즘,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등 - 이밖에 유입된 조로아스터교나 이슬람교도 인도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와 사상의 출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인도의 다양한 종교·사상과 더불어 인더스문명에서부터 아리안족의 문화, 이슬람의 유입, 영국의 식민지 전개과정, 민족주의의 발아, 독립투쟁, 힌두-무슬림의 종파적 갈등,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독립, 간디의 사상,

타고르의 문학세계, 네루의 비동맹, 중립주의 사고 등등을 담은 입문서를 필자는 구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나 사상이 나오는 것은 그 문화적 토양이 다양하고 기름진 때문이다. 따라서 인물이나 종교·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필자의 전공은 인도문학이다. 문학을 전공한 자가 어떻게 문화 일반에까지 복치고 장구칠 수 있는냐고 이야기 해오면 할말이 없겠다. 그러나 ‘문학은 그 사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나라의 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 일반의 전반적인 이해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문학작품을 통해 우리는 그 시대, 그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종교·사회 전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문학사조나 작품경향은 그 시대 역사의 작용과 반작용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앞으로 「인도의 이해」라는 이름의 책을 펴내 보았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바람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강의자료와 여기저기 써낸 논문들과 글을 모아 다듬어볼까 한다. 여기에도 부족한 오늘의 인도정치·경제는 현재 모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분의 도움을 얻어 공저로 내용을 생각도 있다.

필자의 이러한 구상은 다양한 인도문화를 이해하는 단편이 될 것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길을 여는 선임자의 노력에 불과하겠으나, 필자의 이 길을 통해 많은 후학들이 인도를 바로 알고 그 문화에 접근하는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까운 장래에 빛을 보게 하고 싶다.